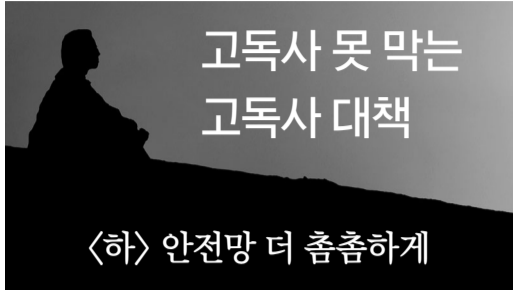


# ‘복지 행정’ 넘어 ‘관계 회복’...위험군 마음 열게 해야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증가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사회현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변화하는 사회적 고립 현상 등은 단순 복지적인 시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는 30대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와 50대가 각각

30~50대 ‘고독사’ 걱정 많지만 정책 수혜 거부감·불안감 높아  
‘관계 중심’ 개선책 등으로 편하게 도움 청하는 분위기 조성

33.2%, 32.0%로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29.8%로 이들에 비해 낮았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문제는 이제 고령의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조미정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늘날 고독사는 노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30-50대는 스스로가 생산가능 연령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위기 의식을 갖거나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둔, 고독사 등이 읍지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고립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가구의 경우에는 세심한 배려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자가 거부한다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파악해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독사 대책을 일찍이 마련한 일본과 영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문제를 ‘복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은 ‘문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두고 있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부처에서 고독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다양한 계층이 문화로 교류하게 하는 ‘관계 중

심’ 개선택을 사용하고 있어 전 연령대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여년전부터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고독고립대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유 교수는 우리나라도 고독사 대상자의 범위를 차츰 넓혀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고독사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고립돼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며 “고독사 위기군으로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해당 서비스를 받게되면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거란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교수는 “갑자기 AI스피커를 집에 들여 ‘기계와 대화하라’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하루 한 두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라’고 강제한다면 그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지속된 관계맺음으

로 라포(rapport·사람 사이의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성과주의로 평가하는 행정 시스템을 고쳐야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고독사 정책의 성과를 수혜자 숫자가 아닌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미자 광주시은둔외톨이지원센터장은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실시하는 지자체나 단체는 예산이 사용된만큼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때 정책의 수혜를 받은 이들의 ‘숫자’가 곧 성과가 된다”면서 “고독사 정책의 성과를 단순 수혜를 받은 사람의 숫자로만 본다면 혜택 받길 거부하는 이들은 언제까지나 고독사 위험군으로 남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결과적으로 모든 성과가 ‘숫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들은 사회로 이끌어낼 수 없다”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두드림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교육청 ‘수업성장인증제’ 교사 만족도 높다

이정선 교육감 역점 시책 첫 시행  
교사가 수업 계획 세우고 공유  
참여 교사 96% “수업 성장 도움”



광주교육청이 최근 개최한 수업 성장 인증제 워크숍. (광주교육청 제공)

광주교육청의 ‘수업성장인증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업성장인증제를 신청해 인증에 도달한 교사 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6%가 “수업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87%는 내년에도 참여를 희망했다.

수업 성장 인증제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역점 시책으로 교사 스스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교사 스스로 수업 계획을 세우고 다른 교사와 수업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델이다. 올해 모두 411명의 교사가 이 제도를 신청해 이 가운데 346명(84%)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 인증을 받았다.

신창초등학교 김명희 교사는 “수업 성장 인증제를 통해 수업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됐다”며 “수업을 동료 교사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버거기도

했으나 준비하는 동안 수업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고, 참관을 통해 더 좋은 수업과정을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인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집중하고, 다양성을 품은

수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2024년 광주교육이 다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실력으로 교육구성원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서 또 고독사

‘월남전 참전’ 70대 숨진 지 3일만에 발견

가족, 이웃과 단절된 70대 남성이 숨진 지 3일 만에 발견됐다.

20일 광주서부경찰과 서구에 따르면 전남 오후 4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1동 한 원룸에서 A(7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안심케어 앱’(3일 이상 전화 미사용시 알림 통보)을 통해 알림을 받은 구청 담당 직원이 지난 19일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집안에서 울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약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어 생계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급여지원 등을 받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였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를 토대로 사후 전인 지난 16일께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영산강청, 상수원 오염원 사들여 수질 개선

광주·전남 5곳 상수원 상류 측사 등 16만평 수변녹지 등 조성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주·전남 5개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담 상류지역 오염원을 사들였다.

영산강청은 토지매수사업의 하나로 올해 수계 관리기금 212억원을 들여 0.535㎢(16만평)의 오염원을 매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산강청은 2003년부터 광주·전남 5개 광역상수원(주암·동북·상사·수어·탐진호) 상류에 있는 측사 등 오염원을 매수해 수변녹지와 생태학습장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체 매수대상 토지 689.1㎢ 중 현재까지 20.9㎢가 매수됐다.

매수대상 부지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수변구역 1km 이내 부지다. 해당 부지가 있는 지역은 순천, 광양, 담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이다.

올해 토지매수사업은 오염물질부하량(오수·폐수에 포함된 순수한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이 높은 측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토지매수사업 본연의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단인 기자 kdi@

## 광주서부경찰, 올해 마약 유통책 153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이 올해 마약류 범죄 전담팀(TF팀)을 운용해 마약 유통책 15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6일 광주 일대에서 마약을 중간 유통한 A(28)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등 총 153명(구속 35명)을 한 해 동안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모텔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 지시를 받아 광주시 서구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 안에서는 1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수시로 모델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은 장기간 잠복 근무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TF팀을 편성해 마약 공급책의 텔레그램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